"광양항 개발 9년 늦춘다"

김성진 해수부장관 "물동량 기대 못미쳐"

최악땐 선석 축소 불가피 특단대책 절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항 개발은 9년 정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및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광양항 개발 완공 시기는 오는 2011년에서 2020년으로 크게 늦춰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선석 축소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김성진 장관은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구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전국 무역항 기본 계획 정비안'은 광양항 선석을 당초 계획이었던 33선석에서 20선석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동량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만큼 광양항 개발 계획을 늦추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윤근 의원이 28일 전했다.

우 의원은 "김 장관이 '일단 오는 2011년까지 20선석을 건설하는 한편 2015년까지 5 선석, 2020년까지 9 선석을 추가 건설, 총 34선석 규모로 광양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2011년까지 마무리 짓게 되어있던 광양항 개발 계획은 2020년까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조성되는 선석은 우선 항만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물동량 추이를 봐서 크레인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기존 광양항 개발 계획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은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해수부가 광양할 개발 계획에 9년 정도 늦추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2020년까지 나머지 14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입장을 반영했으나 2011년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을 설립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양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선석 건설도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와 해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이 2011년 이후 나머지 14선석 건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선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일제강점 피해자 간담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 여성 발전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로 광주에서는 4천435명이 접수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에 김효석의원

민주당 하반기 원내대표로 김효석 의원(담양·장성·곡성)이 선출됐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28일 오후 7시 여의도 모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를 얻은 김 의원을 하반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을 통해 16대 국회에 진출한 재선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중진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사무총장 등 대규모 당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달 100인이상 사업장도 주 5일제 시행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07년 7월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8천138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123만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며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이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해 전 사업장 평균인 1.6시간에 비해 5배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남개발公 유수택사장 사표

전남개발공사 유수택 사장이 28일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유 사장은 민선 4기 출범에 맞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4년 박준영 전남지사 취임 이후 한 차례 사퇴 파동을 겪은 바 있어 사표 제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사장은 광주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고 박태영 지사 재직 당시인 2004년 4월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선임된 뒤 2년여 동안 재직해 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식품안전처' 연내 신설

연내에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인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해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출연연구소 상위 20%

우수 인력 정년 최장 5년 연장

과기부, 科技人 사기진작 방안

앞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 등 24개 정부 출연연구소의 상위 20%안에 드는 우수 연구인력은 정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또 개별 연구소마다 경쟁력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톱 브랜드(Top Brand)' 연구과제 1~3개를 선정,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가R&D(연구개발)기관의 특성화, 전문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 8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과기분야 출연연구소를 총괄하는 3개 연구회와 함께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제정, 올해 10월부터 연구소별로 인사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는 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 연구인력은 정년이 최장 5년간 연장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정년 연장은 2년 계약후 3년을 추가하는 '2+3년'제 방식이나 3년 계약후 2년을 연장하는 '3+2년'제 등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국회 방송위원 3명 내정

청와대도 3명 임명 검토

임채정 국회의장은 28일 여야 원내교섭 단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새 방송위원에 주동황 광운대 교수, 강동순 KBS 감사, 전육 방송채널사업자 협의회장 3명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기 변호사 등 3인을 방송위원으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저출산대책
꼬꼬
꼬꼬
꼬꼬